

제9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5. 6. 23(화) 10:00~12:3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김신원, 김용철, 박 순,
이성훈, 이영수, 이해선, 정정주
- ◆ 안 건 : 미술작품 10건 13작품(조각 12, 회화1)
[신규 10건]
- ◆ 결 과 : 승인 11작품, 재심 2작품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2015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위원 8명중 7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00 위원>

- 박순위원 위원장으로 선출됨.

<위원장>

- 미술작품 제9차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 : 작품을 먼저 살펴본 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 1번 행복을 주는 나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 시공이 어렵지 않고, 평범한 작품입니다. 주로 제작비가 브론즈 캐스팅에 들어가는데, 새 두마리가 여기에 해당되고, 가격이 다른 작품에 비해 어떨지. 이런 스타일이 많고, 저는 대체적으로 다른 조각 심의도 그렇지만요. 서양조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너무 상업화 되는 느낌이 듭니다. 채점표를 보니 다른 시와 비슷합니다.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다 똑같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되었는데 새롭게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술성이 애매합니다. 점수화하는데 형식미, 조형미 이게 다 똑같습니다.
- : 재질의 특성, 예술의 신선한 충격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본 거 같은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을 때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고, 특별한 면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 : 건축 환경과의 조화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채점표입니다.
- : 3D로 해서 여러 앵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그래픽에 신경을 덜 써서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 잔가지를 파이프로 표현한 거 같은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제로 구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표현이 됩니다.
- : 파이프로 두드려서 모양을 내고 치면서 형태가 잡힙니다.

- : 방위표시가 없고, 조각물이 음영지에 설치되는 건지, 햇빛 공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앉는 벤치인데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는 경우는 위험합니다.
- :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한데 서류상 확인이 힘듭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 작가가 협업을 해서 자문을 받으면, 방향표시, 일조,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그림자가 어떻게 드리워져야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 : 건축물 준공검사 시 미술작품도 관련된 부분을 봐서 심의 때의 것이 약속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작가 지원책으로 하는 건데, 병행해야 합니다. 작가가 그동안 얼마나 일관되게 작업을 했는지 작가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합니다.
- : 익명으로 심사하는 거라서, 작가의 작업분야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 : 우리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 : 미술작품 위치가 정확한 시설물의 위치,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하는지 그런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작품질도 높아야 하고, 주위와의 환경을 고려해서 작품의 수준을 높이고, 조경 등 전문가와 협업을 해야 합니다.
- : 돌로 의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작품 속에 관객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 같습니다.
- : 미술작품 위치는 4페이지 도면 보면 도로, 코너 설치는 차 회전 등 시선에 가려질 수 있으니 차후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

- : 2번 작품 기다림, 예술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 소를 의인화하는 것이 조화가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 : 기존의 보지 못한 유머러스한 작품입니다. 보는 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
- : 이런 작품은 처음 봅니다.
- ; 멕시코에 가보면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소의 형태 데생이
정확합니다.
- : 3번 작품보시죠.
- : 외부환경이 다양한 예술을 발휘해서 디자인 포 월을 볼 때
문턱을 없애는 게 어떨지.. 형태를 바꾸라고는 못하지요?
- : 구조, 안전문제는 괜찮지만, 디자인에 대해서는 점수로 평
가해야 합니다.
- : 시공방법을 보면 볼트로 조립하고 하는데, 스피어 볼트 조
립하고 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 문제가 있을 거 같습
니다.
- : 그래서 평가 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구조적으로 맨위에 구조물은 아래로 떨어질 거 같아서 문
쪽에 어떻게 기대게 했는지 제가 맨트를 달겠습니다.

<4번 안전>

- : 많이 본 작품입니다.
- : 네,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있고.
- : 이 작가분이 계속해서 이런 작품을 하셨다면 괜찮은데, 모
방을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 : 6페이지 보면 작가의 프로젝트를 보면 계속해 온 거 같은데요.

- : 작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네.
- : 계속해 온 거 같습니다.

<5번 안건>

- : 평면회화 작품이 신선한 창작은 아닌것 같습니다.
- : 회화쪽의 가격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 : 9천만원 너무 셉니다. 요즘 시대가 흥흥한데...
- : 가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창작의지가 있으면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오히려 너무 낮은 금액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 : 건축주랑 협의해서 온거라. ‘지식의 탑’ 작품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 : 교육시설이라 책을 주제로 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의 조화는 잘된거 같습니다.
- : 설치 스텐으로 한 건 어떤가요?
- : 가운데 지지구조물이 없어서 불안정해 보입니다.

<6번 안건>

- ; 동판과 스텐이 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 : 동판이 더 무겁습니다.
- : 스텐이 좀 약하지 않나요?
- ; 재료비가 스텐이 싸입니다. 너무 상업화 되어 있습니다. 영구적인 재료를 써야 하는데, 동을 다룰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 : 작품도면은 치밀하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 :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 : 수변에 설치된 거니까 괜찮은 거 같습니다.
- : 가격도 저렴한 거 같네요.
- : 거의 그냥 해주는 거 같네요.

<7번 안전>

- : 8페이지 보면 브론즈네요.
- : 32페이지 보면 원경이 나오는데, 안에 조형물 자체만 가격에 해당되는 거죠? 바닥은 벤치 이런 거는 가격에 포함 안 된거죠?
- : 서클 조형물은 시공이 27페이지 보면 구조용 파이프를 원으로 제작해서 4미터인데, 시각적으로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 : 행인이 가면서 움직이게 느끼는 게 같습니다.
- : 독창성은 있습니다.
- : 브론즈작품은 작가가 성실하게 한거 같습니다. 8천인데요.
- :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 : 브론즈로 통을 뜨는 거 같아요.
- : 제일 괜찮습니다.
- : 오래도록 환경조각으로 남겨놓아도 좋습니다.
- : 제작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 : 1번 작품이 더 어렵습니다.
- : 파이프로 연결해서요

<8번 안전>

- : 알콘용접으로 단단히 고정해놨는데, 도면으로 보면 불안합니다. 디테일을 보여줘야하는데.
- : 고정만 한다. 이런 생각 같은데.
- : 이렇게 안되면 구조 안정을 위해 다른 것을 대면 작품이 달라집니다. 3미터 700이라 높은 거는 아니지만 상부, 하부 구조물을 볼 때 접점 포인트 2개가 좌우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사실 시공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 작품재료가 3디로 보면 브론즈 캐스팅으로 보입니다. 자기는 동판을 두드려서 만든다고 했으니 작품은 좋습니다.
- : 12페이지에는 브론즈 캐스팅으로 해놨는데요.
- : 이렇게 얇게 뽑아서..
- : 제작시공에 대한 디테일이 없어서.
- : 조건부로 해서 요구하면 좋습니다.
- : 시공부분에 자세한 것을 봐야 합니다.
- : 작가는 긴장미를 가지고 만든 거 같습니다.
- : 통과하고, 시공을 나중에 검토하게 할수 있나요?
- : 조건부로 안정성 강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 긴장감 때문에 시공이 안된다거나, 덧대거나 하면 안되죠.

<9번 안전>

- : 공모가 몇팀이 되었는지 알수 있나요?
- : 3팀이 본선에서 한팀을 뽑았다고 합니다.
- : 5페이지 위치를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나올 때 코너를 가

리지 않나 싶어요. 건물쪽으로 좀 옮겨서 차량운전자의 시야확보 맨트를 달겠습니다.

<10번 안전>

- : 스텐 삼각을 하면 빛이 아름다울 거 같습니다.
- : 운전자에게 빛반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에서는 제한합니다. 코너에 설치하는데요.
- : 채점하시고, 제출하시죠.

<위원장>

- 오늘은 13개 작품 중 5-1번과 5-2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